
A Study on the Publicness of Christianity Resisting Oppressive Power - Focused on the Activities of Minister Ko, Young-geun between the 1980s and 1990s*

Seonghwi Ko
Presbyterian University

Abstract

Korean Christianity has had close relationships with civil society and has achieved historical advancement through self-devotion and collected competenci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activities of Christians, along with Minister Koh Young-geun, who resisted oppressive power in the 1980s and 1990s, and extract Christianity's common values revealed through times. This study described that common values of Christian publicness, namely, transcendences, universality, relevance, practicality, and openness, are still the values that today's Christianity should keep. The apocalyptic confession of faith and active practice of Koh Young-geun and his colleagues are based on people's concrete life. The universality of justice and love was revealed to protect people's right to live and respect life. The meetings of people out of public office, Fair Press Urging Clerical Association, and political prisoners release movement processes that avoid love without justice and justice without love, and the planned and practiced work through a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showed openness that respects the opinions and views of all, including clerics and laypeople. Al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the 1980s and 1990s were different, the fact that values representing both periods exist offer significant implications to a periodic task by which today's Korean Christian publicness should be restored.

Key words : Christian Publicness, Mokmin Ministry, Transcendences, Universality, Siteness, Practicality, Opennes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과제번호)(NRF-2020S1A5B5A01046795).

Received November 22, 2021 **Revised** December 12, 2021 **Accepted** December 15, 2021

Author: Seonghwi Ko, Researcher, Department of Historical Theology, Presbyterian University
hwigo@hanmail.ne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억압적 권력에 저항한 기독교의 공공성 연구 - 목사 고영근의 1980~1990년대 활동을 중심으로 - *

고성휘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과 연구원

요 약

한국 기독교는 시민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자기 헌신과 역량을 결집시켜 역사의 진보를 이끌어 내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역동적인 역사성과 공적 역할은 빛을 바래고 시민사회가 걱정해야 하는 이기적인 종교집단의 모습으로 위상이 추락하였다. 이제 한국 기독교는 비대해진 몸집을 줄이고 1980-90년대에 불의한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던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을 반추하며 희석되는 기독교의 역사성, 공공성을 다시 세워 민주시민 사회의 근간을 이뤄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목사 고영근과 함께 억압적 권력에 저항했던 기독교인들의 1980~1990년대 활동을 고찰하여 시대를 관통하면서 나타나는 기독교의 공통적 가치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기독교 공공성의 공통적 가치인 초월성, 보편성, 현장성, 실천성, 개방성은 여전히 오늘의 기독교가 지켜내야 할 가치임을 서술하였다. 고영근과 동역자들의 종말론적 신앙고백과 적극적인 실천은 민중의 구체적인 삶에 기반해 있으며, 정의와 사랑이라는 보편성은 민중 생존권과 생명 존엄권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표출되었다. 정의 없는 사랑과 사랑 없는 정의를 지양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일들을 계획하고 실현하였던 재야간담회와 공정언론촉구성직자회, 시국사범 석방운동 과정들은 성직자, 평신도 모두의 의사를 존중하는 개방성을 나타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시대적 성격이 확연히 다름에도 이 시기들을 관통하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은 오늘의 한국기독교의 공공성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주제어 : 기독교 공공성, 목민사역, 초월성, 보편성, 현장성, 실천성, 개방성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박사후국내연수)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0S1A5B5A01046795).

I. 서 론

우리나라 100년 격동의 역사는 식민지, 군정, 학살, 전쟁, 혁명, 쿠데타, 군부독재, 시민사회 성장과 민주 역량 강화,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정권 교체에 이르기까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회발전의 모든 단계와 다양한 경험의 총체를 안고 있다. 처절하면서도 빛나는 역사 위에 한국 기독교는 시민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자기 헌신과 역량을 결집하여 역사의 진보를 일궈냈다. 복잡하고 긴 여정의 역사 속에 국민, 시민이 탄생하였고 그 안에 기독교는 사회 진보를 향한 각 부문 운동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렇게 사회의 공적 역할을 담당했던 기독교의 위상은 더 이상 서술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역동적인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보수적 기독교 세력은 끊임없이 혐오의 발언과 몰역사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진보적 기독교 세력은 더 이상 저들과 함께 할 수 없음에 선 긋기를 하고 있는 그 사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서 있는 중도를 이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국의 기독교는 양극단을 달리고 있다. 어느새 개 교회 중심 목회, 성장 중심 목회가 전염병처럼 번져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 공적 종교로서 자기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배 논리가 모든 개인을 파편화했듯이 교회 역시 신자유주의 지배 질서에 무릎 꿇고 자본의 단맛을 맛보며 각자 생존의 길을 선택하였다. 슬며시 역사성을 내려놓고 집 없는 사람들의 슬픈 등을 뒤로한 채 교회의 침탑을 높여 왔다.

목숨을 위협하였던 폭압적 군부 권력은 사라졌고 동원체제에 익숙하며(황병주, 2011; 조희연, 2010) 자기 검열적(최애영, 2010), 향락적(주은우, 2014), 파편화된 삶(김옥선, 2017)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시민들도 이제는 괄목할만한 성장 속에서 주권자로서의 탄탄한 민주시민 계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국 기독교가 비대해진 몸집을 줄이고 1980-90년대에 불의한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던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을 반추하며 회석되어가는 기독교의 역사성, 공공성을 다시 세워 민주시민 사회의 근간을 이뤄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담론들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계속 창출, 소멸되어 가지만 그 사이에서 사라진 건 관념뿐이고(Luke Ferretter, 2014: 163) 살아남는 건 주제, 의식, 믿음, 행동이다(Louis Althusser, 1991: 174). 시대는 변하였지만 기독교의 역사의식과 공적 사명, 그리고 그에 따른 활동은 여전히 살아남아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지속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독교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기능에 대한 기독교의 공공성의 문제는 한국 기독교 전반에 걸쳐 심각히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본 연구는 이미 선행연구로서 제시된 바 있는 기독교 공론장과 공통적 가치, 공공성의 논의¹⁾

1) 본 연구자는 기독교의 공공성 논의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우선 기독교 공공성의 논의 전개와 공통적 가치들을 추출하여 1980-1990년대를 보고자 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고성휘 b, 2021), 이 논의를

를 전제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기독교인권운동과 고영근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시대를 초월하여 관통하는 기독교의 공공성²⁾에 대한 고민을 심화하고자 한다. 억압적 권력에 저항한 기독교가 80년대와 90년대라는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어떤 가치들을 추구했고 또 이것들이 오늘에서도 유용한 가치들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각각 다른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관통하는 기독교의 초월성, 보편성, 현장성, 실천성, 개방성이 기독교 공공성의 공통적 가치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와 과연 이러한 가치들을 되찾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를 문제 제기하고자 한다.

II. 1980년대 기독교의 저항과 민중생존권

1. 저항을 넘어선 예언자적 경고 투쟁

1) 긴급조치 구속사건

고영근은 1976~1979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2차례 구속되어 3년 9개월 구속 생활을 하였다. 1차 구속은 충북 단양에서 ‘육영수 묘지 참배 반대와 총화 유신한다는 지도층들의 사치 문제, 통일교와 정치세력과의 유착 문제’ 등을 비판하여 구속되었다(고영근 목민연구소, 2012; 124-125). 2차 구속은 전남 강진 ‘농민을 위한 기도회’에서 ‘악명 높은 유신헌법’, ‘집권자들은 총칼로 정권 영속하려 하며 부정을 자행하고 있고 농민과 근로자들은 비참한 현실에 살고 있다’³⁾는 요지의 설교로 구속되었다. 또한 그가 1차 구속 이후 출판한 『사도행전 설교자료집; 옥중수기』는 긴급조치 9호 추가 구속의 빌미가 되었다. 그의 96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 광주고등법원 10시간여 재판기록과 1시간 30분여 최후진술은 불의한 정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

기초로 본 연구는 고영근과 함께 동역하였던 기독교인들의 1980-1990년대 활동을 통해 발현되었던 기독교 공공성을 논하고자 하였다.

- 2) 일반적으로 공공성이란 말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국가에 관계된 공적인(official) 것이라는 의미로서 이 의미에서 공공성은 국가가 법이나 정책과 같은 것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둘째,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계된 공통적인 것(common)이라는 의미로서 이 의미에서 공공성은 공통의 이익, 재산, 공통적으로 타당한 규범, 공통의 관심사 같은 것을 가리킨다. 공공의 복지, 공익, 공동의 질서, 공공심 같은 말은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셋째, 누구에게나 열려있다(open)는 의미로서 이 의미에서의 공공성은 누구의 접근도 거부하지 않는 공간이나 정보 같은 것을 가리킨다(齋藤純一, 2009; 18).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통적으로 타당한 규범으로서 공공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부 판결문(1978년 2월 16일 재판장 판사 정태규, 오세빈, 신정식) 중에서,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에 처한다.”

고하는 예언자의 외침으로 기록된다.

그는 이 구속사건을 매개로 한 발 더 적극적인 저항의 길로 들어선다. 특히 2차 구속은 그에게 저항의 논리적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고 1980년대에 이르러 더욱 적극적인 투쟁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의 투쟁의 근거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일, 하나님이 지으신바 되는 인간 권리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리는 초기 예언자적 선포에 있었고 그 예언자적 선포는 민중의 대변자로서의 사명에 근거한다.⁴⁾

2) 저항에서 경고로

그가 석방된 후(1979. 12. 15) 가장 먼저 한 일은 김재규 구명운동이었다. 1980년대 초에 구명운동을 세 차례 하게 되는데 김재규 구명운동, 김대중 구명운동, 문부식, 김현장 구명운동이 그것이다. 그가 행한 구명운동은 해외 연관조직, 국내 정치적 연관성이 없는 가운데 행해진 운동이었기에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하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1980년 한국목민선교회를 설립하였으나 80년대 초반에는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선교회 자체가 정치투쟁의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명 활동은 조직적일 수 없었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는 김재규 구명운동을 전개하려 윤보선, 임 모 대법원 판사, 원일한 선교사 등을 찾아다니며 구명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1982년에는 문부식, 김현장 구명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1983년 2월 목요예배에서 문부식, 김현장 구명을 위한 ‘정의를 확립하자’라는 설교를 하게 되었다. 원고가 있는 그의 두 번째 설교였고 그는 이 설교로 41일간 연행되었다.⁵⁾

신군부는 1980년 5월 광주학살이라는 강력한 폭력성으로 자신들을 무장하였다. 박정희가 한편으로는 국가와 법질서의 복종을 요구하는 정치적 폭력을, 다른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무의식을 가장한 강력한 아버지 형상(father figure)의 강요로 인한 문화적, 심리적 폭력을 전개하였다 한다면(주은우, 2014; 68), 신군부는 출발 자체가 무조건적인 폭압적 정권으로 등장하였다. 광주항쟁에서 벌어진 학살의 충격은 1981년 항쟁으로 희생된 이들의 추모예배조차 드리지 못할 정도로 살얼음의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⁶⁾ 공식적인 추모예배는 다음 해인 1982년 5월

4)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언론이 마비된 지 오래되었고 연약한 민중은 억울함과 자기 의사를 어디에 가서 호소할 수 없고 대변자도 없습니다...이렇게 어려운 때 목사, 신부가 민중을 위하여 대변자가 되어 불의에 항거하며 정의를 외치지 아니하면 누가 이 민중의 대변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인 정의가 선포되고 민중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구조악을 타파할 것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성직자들이 용감하게 민중의 대변자와 구조자로서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고영근 목민연구소, 2012; 307-308).

5) 안기부 정보국, 보안사령부, 검찰청 공안부, 치안국 정보과, 시경 정보과, 동대문경찰서 정보과, 강서경찰서 정보과에서 설교 취소압력을 가하였으나 굽히지 않고 설교를 하였다. 결국 1983년 2월 25-4월 6일 인 약 41일 동안 안양경찰서, 서울시경 정보과 분실, 중부서, 대공분실, 시경 정보과 수사계 분실, 검찰청, 서울구치소 수감, 안기부 수사국을 거쳐 석방되었다.

6) 1주기 추모예배는 공식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약 30여 명이 YWCA에 모여 비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18일 광주 YWCA에서 드리게 되었다. 광주 NCC, 광주 EYC, 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교사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여 드린 예배에 고영근은 목숨을 건 설교 “순국열사의 핏소리”로 유가족에게는 위로, 전두환에게는 ‘살인마!’의 호칭을, 미국에게는 ‘학살방조죄’를, 불의한 권세를 방조한 한국교회에게는 ‘회개’를, 경제 제일주의와 불의한 권세 앞에 맹종하는 동포에게 회개를, 한국의 민주화를 방해하는 북한 김일성 집단에 회개를 외쳤다. 이 설교는 광주항쟁의 학살책임이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에 초점이 있었던 당시의 관점에서 미국의 방조를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신군부와 미국 정부에 대한 저항의 영역을 확산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살얼음 같던 정국의 긴장을 깨고 신군부의 폭압을 향해 “회개하라!!”를 외쳐 민주세력이 저항할 수 있는 물꼬를 텃다.⁷⁾ 그는 이 설교로 많은 고난을 당하였다.⁸⁾ 그 뿐 아니라 강진읍교회 김경식 목사(전남노회 교사위원회 총무), 김영진 집사(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회장), 동 협의회 임원 류시경, 백혜진 외 14명이 수사기관에 강제 연행되었다.⁹⁾ 고난의 끝에는 또 다른 고난, 즉 문부식 김현장 구명을

김병균 목사(나주 고막원 교회)의 구술에 의하면 “YWCA에서 추모행사를 한대. 조아라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아니라 눈물과 뉘두리여. 박용준이라고 신협 직원이 있는데 조아라 장로님이 길렀는데 5.18 때 죽은거야. YWCA 안에서. 늙은 내가 죽어야 쓸 것인디 젊은 내가 죽었냐 하며 우시는 거여. 그제 설교여. 망월동 묘역에 가자...잠깐 기도하고 왔는데 경찰들이 연행해 갔어요. 추모제를 했다고, 회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을 해 갔죠. 그런 세상이었어요.” (고성휘 편, 2021; 157).

- 7) 1982년 NCC 인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1982. 5. 20. “3. 광주 사건 2주기 추모예배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여 5월 24일 보고. 간담회를 양 위원회 공동주최로 개최하여 교계의 호소를 집약시키기로 하다.” 1982. 5. 24. 오전 9:30 인권 청년 연석회의 “4. 광주 고영근 목사의 설교 등 제시된 자료 등은 정치 목적적인 것이 아니고 기독교자들의 신앙고백으로 확인한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2주기 추모예배로 인해 설교자인 고영근 목사와 주최 측 김경식 목사, 김영진 총무 등 많은 참가자들이 연행되어 전남노회와 5.18 추모예배 사건대책위원회는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며 석방을 요구한 기록은 남아있는데 이에 대한 NCC의 구체적인 대응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것인지 실제로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 8) “예배형식으로 열리는 5.18 광주항쟁 2주기 행사에 EYC 소속 각 교단 청년들이 참석하기로 하였다.(중략) 당시 전두환 정권 집권 초창기의 살벌한 분위기로 볼 때 2주기 행사의 설교를 맡았다는 것은 거의 자살이나 마찬가지의 결단이었다.(중략) 나중에 몇 년이 지나 우연히 보안대 출신 예비역과 합석을 했는데 그는 기독교계 인사들 고문을 담당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리 때려도 반응이 없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했다. 그는 야수가 되어 죽일 듯이 때리는 데도 상대는 신음소리만 낼 뿐 입을 꼭 다물고 말을 하지 않더라고 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나 고영근 목사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넘죽 인사를 해버리고 말았단다...”(김경일, 2019; 217~221).
- 9) “13. 5.18 추모예배 사건으로 구속된 고영근 목사, 김경식 목사, 김영진 회장은 석방되어야 한다. 남은 학생 백혜진, 류시경을 즉시 석방하고 추후 보복해서는 안된다”(성명서‘5.18 추모예배 사건에 즈음하여’ 1982년 5월 20일 5.18 추모예배 사건대책위원회).
“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추모예배를 경건하게 마친 후 영령들에 대한 추모의 뜻으로.(중략) 정문을 나서자 기동대가 저지했다.(중략) 김영진 집사의 머리카락을 끌고, 팔을 비틀고, 구타하면서 연행해갔고, 이어 김경식 목사를 비롯 14명의 청년, 학생들을 계속 끌고 갔다. 또한 추모예배 설교자 고영근 목사를 서울로 연행하여 갔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경악한 우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긴급총회를 소집 청원하며

위한 “정의를 확립하자”라는 설교가 기다리고 있었다. 고영근의 신군부, 억압적 권력에 대한 저항은 ‘고난의 적극적 받아들임’과 ‘예언자의 경고’로 출발한다. 1970년대 긴급조치 구속이 박정희 정권의 억압에 의한 저항의 사건이었다면 1980년대부터 나타나는 그의 행보는 ‘수동적 저항을 넘어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고’에 있다. 1980년대 초반 그의 활동은 설교와 구속자 돌봄, 구명운동 등 개인적인 예언자적 활동에 기초하였으나 해외 순회 설교를 마치고 난 1984년부터는 NCC 인권위원회와 한국목민선교회, 그리고 미국 나성 목요기도회, 독일 토요기도회, 캐나다 등지의 다양한 해외교포 민주화 모임과 국내 재야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재야간담회의 연관성을 통해 활동을 확대해갔다.

3) 민주 지평의 확산

1984년에 들어서 그의 경고는 수도권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 지방 곳곳의 집회 설교를 통해 시민저항의 확산을 이끌었다. 예를 들어 1984년 4월 2일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4권』 필화사건으로 안기부에 연행되어 모진 고문과 심문을 받고 석방된 지 그 다음 날 나라를 위한 기도회(4/8), 안동지구 부활절 설교(4/11), 청주(4/12), 강진(4/17), 해남(4/18), 마산(4/19), 군산(4/20) 지구의 부활절 설교를 마치고 광주항쟁 기념대회를 위한 대회조직과 사업토의(4/23), 이리지구 교역자 강좌회, 재야간담회 성명서 초안회의(5/1) 나라를 위한 기도회 및 광주 앰네스티 공동주최 설교(5/6), 대전노회 청년연합 신앙강연(5/7)을 마치고 난 이틀 뒤 광주 앰네스티 설교 사건으로 인해 안기부에 연행되었다. 석방되어 다시 연행되기까지 그가 설교한 집회 누적 인원은 약 3,000여 명에 달한다. 85년의 촉박한 일정은 86년을 거쳐 87년에 이르러 집회 참석 인원, 각 지역 도시, 교파를 초월한 교회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87년에는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광범위한 민주화 강연과 설교를 하였는데 8월부터는 각 지구 국민운동본부 창립을 위한 강연이 중심되었다. 5월부터 12월까지 각 지구 강연과 대학교 강연을 포함해 약 60여 회에 걸친 시국 강연과 46회에 걸친 설교를 통해 민주 의식을 고양하고 교회의 현실 참여의 폭을 넓혔다.¹⁰⁾ 그의 집회 지평 확장은 1984년 이후 기독교 일반대중의 민주 의식 확산과 집중

노회는 폐회하지 아니하고 양림교회당에서 기도회를 계속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성명서‘5.18 추모예배 및 「전남도민 단합대회」 사건 경위와 우리의 주장’ 1982. 5. 21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 10) 광주 YMCA 23명 목사 단식농성(5.4), 부산시 연합 기도회(5.4), 기장 선교교육원(5.6), 예장목협 단식(5.8), 광나루 장신 단식(5.8), 고려대 집회(5.13), 순천노회 나라를 위한 기도회(5.15), 부여지구(5.21), 충남노회(5.21), 이리(5.25), 여수(5.26), 여천(5.26), 목포 범국민대회(6.10), 강경(6.21), 의성지구집회(6.24), 태안지구(6.25), 울산지구(6.28), 안동지구(7.1), 울산지구 국본(7.6), 나주(7.18), 충남 기장 연합(8.6), 제주지구 인권선교대회(8.10), 용인지구(8.12), 의정부지구(8.13), 광주지구(8.15), 무안지구(8.17), 완도지구 국본(8.24), 전북 고산지구(8.25), 광양지구(9.15), 영광지구(9.27), 진안지구(10.26), 충신대(10/30), 김제지구(11/1), 호남신학대(11/3), 서울신학대(11/4), 임실지구(11/7), 청주지구(11.8), 고창(11.18), 광양(11.19), 광주(11.19), 홍사단(11.20), 장성지구(11.22), 부여지구(11.25), 청주지구(11.26), 목포지구(11.27), 광명지구

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였다. 진보적인 기독교인 뿐 아니라 공동의 마음을 모으고 동참하는 중도 교회들도 확대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한 각 지역 교회들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경북 의성지구, 포항, 부산, 울산, 충북, 충남 대전지구 등에서 균일하게 집회가 열렸고 고영근의 시국강연 및 설교는 어디에서나 이뤄졌다. 각 도시의 시국 집회의 매개가 되어 준 것은 각 지역의 교회들이었다. 예배당은 집회를 여는 공간이 되어주었고 지역에 바탕을 둔 사람들과의 조직들은 작은 집회에서부터 큰 집회를 연결하는 매개가 되어주었다. 교회는 정권의 폭력성을 일반대중에게 폭로하고 시민들의 저항의식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결집하는데 주요한 연결지점이 되어 주었다. 직접적인 예로서는 순천노회 연행사건을 예를 들 수 있다.¹¹⁾ 이외에도 여수, 여천, 의성, 태안, 울산지구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마치고 가두시위가 전개되었는데 특히 의성지구는 고영근의 설교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햇불 시위로 연장되어 경찰과 밤늦도록 대치하며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다. 결국 이 사건은 순천지역 6월 항쟁의 촉발지점이 되었다. 또한 의정부, 무안지구 민주화 강연, 완도지부, 진안지부 국민운동지부 강연이나 광양, 영광지구 강연 역시 교회가 매개되었다.¹²⁾ 직선제 개헌의 쟁취와 1990년대의 시민운동이 분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1985~1987년 사이 폭발적으로 발전한 민주시민 의식의 확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저변에는 교회와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고영근의 활동 내역에서 엿볼 수 있다.

(11.28), 일산지역(11.29), 광주지구(12.1), 목포지구(12.2), 전주지구(12.3), 순창지구(12.6), 담양&화순지구(12.7), 온양지구(12.9), 김제(12.10), 남원(12.10), 여수&여천지구(12.11), 부산지구(12.13)로서 연합기도회와 단식농성 설교를 시작으로 6.29 선언 직전까지 범국민대회를, 7월은 시국설교, 8월~11월 국민운동본부 각 지부창립 강연, 12월은 대통령 선거유세 강연을 하였다. 또 개별집회로 부산, 서울, 이리, 부평, 판교, 강경, 강원, 화순, 부천, 오산, 제주, 임실, 일산, 순창 등 46개 교회설교를 하였다(고성휘 편, 2021; 601~608, 고영근 1987년 수첩).

11) 순천노회 주최 「나라를 위한 기도회」는 순천노회 청년연합 기도회, 교역자 강좌회와 함께 진행되었는데 고영근은 설교 직후 연행되었다. 이에 순천노회 청년들과 노회 목회자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70여 명의 청년들은 석방 요구를 위한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 때 순천시 최초로 최루탄이 터졌다. 전원 연행된 문제로 순천대 학생들 가세하여 독재 타도, 호헌철폐를 외쳤고 이 사건이 촉발되어 순천 6월 항쟁이 시작되었는데 북부시장 장날에 최루탄이 터져 이에 반발한 일반 시민들도 합세하면서 수만 명이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 순천 6월 항쟁의 촉발지점은 순천노회 청년연합회의 「나라를 위한 기도회」였다 ((사) 광주 전남 6월 항쟁, 2020; 14-15. '순천 지역 1987년 6월 항쟁 일지' 중에서, 14-15).

12) 국민운동본부 각 지회가 설립될 시기에는 민주운동이,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서 11월 하반기부터는 교회정보보다 정치적인 움직임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고영근은 민주 강연장이나 유세장이나 할 것 없이 이 땅의 민주화와 민족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2. 기독교인들의 결집과 확산

1) 목요일예배와 기독교인들의 결집

‘NCC 고난받는 이와 함께하는 목요일기도회’는 한국 민주 운동사에 있어서 최장기 정치 및 저항 공론장이다. 목요일기도회는 유신과 신군부, 6공 시대를 통틀어 행해진 거대한 국가 폭력 하에 신음하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 교수, 언론인 등 일반 시민들과 기독교인들의 자발적 민주 의지들을 결집하는 저항 공론장이었다. 1974년 7월 18일 공식적인 출발을 하였다. 민청학련 사건을 마주했던 구속자 가족들의 울부짖는 호소, 민중 생존권과 생명 존엄권의 박탈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서 출발하여 인권을 강도당한 노동자들의 호소, 일하고도 노임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호소를 귀 기울이는 타자의 역할을 굳건히 감당하였다(고성휘 a, 2021, 148-149). 목요일기도회는 70년대 후반에 금요일기도회로 바뀌었고 80년대에 들어서는 전두환 정권의 거센 탄압에 드리지 못하다가 1982년 2월 11일부터 격주로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는 목요일예배’라는 명칭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정권의 압력 속에도 1983년부터는 착실히 근력을 키워갔다. 목요일예배 위원회 기구를 조직¹³⁾하고 예배의 성격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일, 설교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려 노력하였다. 80년대 들어와 기감의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기장, 예장, 기감의 순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¹⁴⁾ 목요일예배 설교를 자청한 성직자들은 구속의 위험을 감수하고 나섰다. 그 중 고영근은 11회 목요일예배 설교 중 6회 연행되어 약 75일의 연행기록

13) 예배프로그램 위원회(순서 담당자 선정 연락, 특별순서), 예배 인원 동원 위원회(예배 인원 동원, 예배 안내장 작성, 발송 문제), 목요일 고난의 현장 순서위원회(각 분야별 고난의 현장조사 발표, 특별순서 프로그램 진행)로 나누고 각 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배치하였다. 원칙은 목요일예배 성격 부각, 순서 담당자(특히 설교자)를 새로운 인물로 대치, 격주로 하는 예배 사이에 고난의 현장, 특별 프로그램을 선교 단체들과 협력, 진행하도록 한다(“1983년도 목요일예배를 위한 계획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NCC 인권위원회 사료 1004-060-000-3157). 고영근은 격주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현대인을 위한 교양 강좌회”를 목요일예배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진행하였다.

14)

<표 1> 설교자 교단분포
<Table 1> Preacher Distribution

		설교자 교단분포								
연대	교단	기장	예장	기감	복음	성공회	성결	카톨릭	구세군	교수 및 일반인
1970년대	명수	17/57	15/57	5/57	3/57	3/57	1/57	1/57	0/57	12/57
	비율	30%	26.3%	8.8%	5.3%	5.3%	1.8%	1.8%	0%	21%
1980년대	명수	21/71	16/71	12/71	3/71	3/71	1/71	1/71	1/71	13/71
	비율	30%	22.5%	16.9%	4.2%	4.2%	1.4%	1.4%	1.4%	18.3%

(고성휘 a, 2021; 156)

을 갖고 있는데 목요일예배 역사상 최다 연행과 최장 연행기간 기록을 세웠다.¹⁵⁾

목요일예배는 1984년 5월 17일 예배를 마치고 난 5월 24일부터 매주 목요일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매주 예배로 전환하는데 대한 정권의 압력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매주로 전환되는 첫 예배 설교는 고영근목사(‘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였다. 정사복 경찰이 예배실 문을 폐쇄하고 2층 계단까지 막고 출입을 방해하여 고영근은 계단에서 설교를 하였다. 그 다음 주인 5월 31일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의 방해로 1층 복도에서 예배를 드렸고 문익환목사(‘평화의 적’)의 설교가 있었다. 두 목사의 설교와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목요일예배는 매주 예배로 정착되었다. 1984년 유화 국면으로 넘어온 시기였지만 역설적으로 전두환 정권의 폭력성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아울러 목요일예배에 대한 탄압 속에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 해직 교수 및 언론인 등의 폭력피해 사례보고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1987년 6월 항쟁을 맞는다.

목요일예배가 갖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가장 큰 의의는 자신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부당하다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노점상, 농민, 도시빈민, 노동자들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목요일예배의 전체 의미는 정치적 저항의 공론장(고성휘 b, 2021; 245) 이지만 생존권 박탈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중 결집의 장이자 투쟁의 장이란 의미가 더 크다. 민중 생존권과 억울함에 대한 호소의 귀 기울임의 목요일예배의 역사는 그 진정성이 해외로 전파되어 해외교포들의 가슴을 울렸다. 목요일예배는 곧 미국 LA 목요기도회(회장; 김영철), 뉴욕 목요기도회, 독일 토요기도회(회장; 서의실), 캐나다 작은 뜻 기도회, 호주연합교회 한인교역자회의 ‘화요기도회’ 등 해외교포들의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의 모임을 가지려는 노력이 월요, 화요, 목요, 토요기도회 순으로 조직되고 있었다. 또한 국내의 모임도 마찬가지이다. 각 지역에서 목요일예배를 연장하는 모임체들이 등장하였다. 전주지역, 광주지역 목요기도회가 순차적으로 이어졌다.

2) 민중생존권 보호를 위한 기독교인들의 동참

전두환 정권의 폭력성은 학생들에게 직격탄이 되었고 노동, 농민, 도시빈민들에게는 생존권 박탈을 불러왔다. 해외 및 각 지역 기독교인들을 결집하게 한 것은 민중 생존권 보호와 아울러 옥에 갇힌 사람들의 돌봄이다. 1983년 해외부흥회 성과를 매개로 하여 NCC 인권위원회 후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¹⁶⁾ 고영근은 1984-1986 3년의 기간 동안 NCC 인권위원회 후

15) 고영근은 현금기도로 11일 동안 연행되기도 하였다. 현금기도에 대한 연행사건은 곧바로 항의성명서 발표로 이어졌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의 “고영근 목사의 기도를 구류처분한 종교탄압 현실에 임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의 “기도는 유언비어가 아니다”(고성휘 편, 2021; 531-532).

16) “고영근목사 해외 선교활동 보고” 1. 개체교회 부흥회(30회) 2. 연합집회(8회) 3. 교역자 강좌회(10회) 4. 특별강연(4회) 5. 좌담회(17회) 6. 신문기자 회견(5회) 7. 방문 및 목회강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NCC 인권위원회 자료 1006-040-000-2160).

원회장을 맡았다. 그는 84년~86년까지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인권위원회 후원회의 규모를 늘렸을 뿐 아니라 해외교포들과 NCC와의 연결고리를 확고히 하였다. 그의 호소문은 전국의 교회와 해외교포들의 마음을 움직여 기독교인의 정의로움을 이끌었다.

“옥에 갇힌 자를 돌아봅시다.” 1. 옥에 갇힌 자를 외면하지 말라; 옥에 갇힌 자를 외면하는 교회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거하는 복음의 반역자입니다.(로 2:21-24) 2. 믿어야 할 십자가와 저야 할 십자가; 십자가를 팔아서 호구지책을 삼으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죄악입니다.(히 6:4-6) 3. 숨어있는 의인과 행동하는 의인; 목회자들이 모두가 행동하는 의인과 엘리야 같은 예언자는 될 수는 없어도 사렙다 과부와 같이 의인을 뒷받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4. 작은 액수라도 좋으니 반드시 성원하십시오; 우리 목사들이 저야할 고난의 십자가를 학생들이 지고 감옥에서 고생하는데 우리가 뒷받침하지 않고 무관심해야 되겠습니까? 1985. 3. 2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후원회장 목사 고영근	존경하는 친지들에게; 기쁜 성탄절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국 하늘 밑에는 많은 학생들과 민주와 자유를 위해서 수고하던 양심수들이 춥고 배고픈 옥중에서 떨며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눌린 자를 해방하고, 자유와 평화를 가져온 것이 크리스마스의 뜻이라면 어떻게 옥중에서 고생하며 떨고 있는 양심수들을 잊고 우리끼리만 성탄절을 즐길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을 기억 하십시오. 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저들에게 따뜻한 담요 한 장(\$10.00)이라도 보내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 하십시오. 나성목요기도회 회장 김영철 목사
--	---

그의 사료에 의하면 독일 토요기도회, 산동네, 캐나다 런던한인회, 캘거리 구유회, 런던 작은 뜻, 토론토 한국 민주사회 건설협의회, 미국 밀워키 한인회, 휴스턴 한인회, 나성 영락, LA 목요기도회, 시카고 한국 인권운동후원회, 호주 한인회 등의 단체들이 민정당사 점거 구속 학생, 건대 사건 구속 학생, 분신 대학생 유가족, 서노련 구속자, 상계동·암사동 철거민, 고 박종철, 구로구청 양원태 등 구체적으로 나열된 성금의 목적들이 빼곡히 제시되어 있다.

이들의 민중 생존권 투쟁의 동참과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공감의 확대는 민주화라는 공통 목표에의 공감대 영역도 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품어야 할 아픔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선적으로 자리 잡는다. 기독교의 보편적인 사랑이 서로와 서로를 연대하는 연결고리가 되어 준 것이다. 이러한 각 지역과 해외교포들의 지원과 연대는 민중 생존권과 생명 존엄권을 지키고자 공권력의 폭력에 맞선 희생과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장성과 실천성이 기독교적 보편성을 이끌어 오게 한 것이다. 상호신뢰는 현장성과 실천성에 있음을 80년대 고영근의 활동과 NCC를 비롯한 기독교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이 증명해준다.

Ⅲ. 1990년대 시민 주체의 성장과 기독교 공공성

1. 시민 주체의 성장과 기독교 인권 운동의 쇠퇴

전두환 정권의 폭력성이 전방위적으로 숨 쉴 틈 없이 가해질수록 시민의 저항은 더욱 확대되었고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라는 최고의 성과를 쟁취하였다. 선거 결과는 참패에 가까웠지만 과거 5공화국의 폭력성은 지속될 수 없었고 그만큼 시민사회는 분화되어 각 부문에서 성장한 면모를 보였다. 88년 노동자 대투쟁, 89년 통일운동을 거쳐 90년대를 맞이하면서 여러 형태의 시민단체들이 등장하였다. 지방자치와 시민사회의 발전은 90년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YMCA와 YWCA가 주도한 소비자 운동, 지역 공동체 운동에 이어, 1990년 서울 JPIC 대회를 계기로 통일 운동, 평화 운동, 생명 운동 등이 더해졌다. 1988년 공해추방운동연합(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1989년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1994년 참여연대 창립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1991년 지방 자치제의 부활을 기회로 전문성을 갖춘 생활 밀착형 풀뿌리 시민 운동 조직으로 정착해 나갔다(조철민, 2013; 240-247).

시민운동이 활성화될 때 88 선언 이후 보수 교단은 한기총으로 그들의 세력을 조직화해갔고 민주화 이전부터 NCKK 등 WCC와 에큐메니즘을 공유하며 사회적 행보를 함께 해온 기존의 사회 선교 조직들은 교회 대중들로부터 유리되면서 재정 확보와 인력 충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하희정, 2020; 310). 또한 NCKK 내부의 자리다툼과 해외교회의 재정지원 중단, 재정부담으로 이어진 NCKK 보수화 현상 등은 90년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대변한다. 하지만 손승호의 지적처럼 NCKK의 상징성을 가장 위협했던 문제는 따로 있었다. 양심선언자의 발길이 경실련과 국회로 향했다는 것(손승호, 2018; 48),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농성에 돌입한 지하철노조원 271명의 전원 연행은 NCKK의 상징성을 크게 흔들리게 하였다. 이후 양심선언자와 사회적 약자들은 명동성당과 조계사를 찾게 되었다. 이로써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큰 역할을 했던 역사성의 위상이 실추되었다는 것에 기독교 인권 운동의 고민이 있었다. 손승호는 1997년을 기점으로 교단 연합체로서 조직적 상징성은 한기총에게 내어주고, 소수자 보호라는 가치적 상징성은 경실련 등의 신생 시민 연대나 이웃 종교들에 넘겨주었다고 진단한다(손승호, 2018; 64). 1990년대 NCC 목요예배의 운영방식을 보면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다.¹⁷⁾ 초라한 성적표이다. 매주 드리던 예배는 1991년 6월 이후 한 달에 한 회의 예배로 축소되었고(94년부터 매주 예배드리다가 98년에 다시 한 달 한 회, 주최는 서울지역 인권선교협의회) 80년대 생존권을 호소하며 참여했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의 숫자와 사례 건수 등이 현저히 줄었다. 지하철(노동자들의 연행 이

1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NCC 인권위원회 사료로 만든 표이기 때문에 사료로 남아있지 않은 예배는 제외되었다. 이보다 훨씬 많은 예배가 행해졌으리라 추측되는데 그 발자취를 찾기 못한 연구자의 한계가 있다.

<표 2> 1990년대 목요일예배
<Table 2> Thursday Worship in the 1990s

1991	2. 7	걸프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2. 21	장기 복역 출소 무의탁자를 위한 “사랑의 집” 모금 운동 추진대회
	2. 28	통일 인사 석방촉구를 위한 목요기도회
	3. 7	수서 비리 진상규명 촉구 및 지자체 분리 선거 규탄을 위한 기도회
	3. 14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목요기도회
	3. 21	강제징집 철폐와 군정인권수호를 위한 목요기도회
	5. 30	국악 예배 (서울지역 인권선교협의회 주관)
	6. 27	6월부터 목요기도회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만 드림 광고
	10. 31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목요기도회
1992	30	2부 순서로 윤석양, 한준수씨 석방과 양심선언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진행
	4.16	장애인 운동위원회, 고 백원옥씨(31세, 강남대 신학과, 뇌성마비 장애인)추모
1993	2. 11	양심수 전원 석방과 해직 교사 원상 복직을 위한 목요기도회 및 촛불 행진
1994	7. 28	구속/수배/해고 철폐, 지하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목요일예배
	8. 4	철폐, 지하철 노동자 구속/수배/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목요일예배
	8. 18	구속/수배/해고 철폐, 지하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목요일예배
	8. 25	구속/수배/해고 철폐, 지하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목요일예배
	9. 1	구속/수배/해고 철폐, 지하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목요일예배
	9. 8	구속/수배/해고 철폐, 지하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목요일예배
	9. 15	구속/수배/해고 철폐, 지하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목요일예배
	10. 6	구속/수배/해고 철폐, 지하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목요일예배
	10. 12	국회 법사위 5.18 특별법 상정을 기원하는 목요일예배
1995	5. 3	고 김세진 열사 추모예배
	6. 8	공권력 남용 규탄과 한국통신 노동자를 위한 기도회
	6.15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고 양봉수씨 추모기도회
	9. 28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
	10. 12	국회 법사위 5.18 특별법 상정을 기원하는 목요일예배
	10. 31	국회 법사위 5.18 특별법 상정을 기원하는 목요일예배
	12. 7	국가보안법 철폐 및 선교 탄압 중지를 위한 기도회
1997	9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처리 원천 무효 촉구 비상시국 목요기도회
1997	10. 23	행당1동 폭력철거 및 성폭행 사태에 대한 목요기도회
1998	2. 5	안기부의 김형찬 고문 수사 진상규명과 안기부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요기도회
	3. 19	국가보안법 폐지와 민주단체 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목요기도회
	4. 2	귀환 희망 외국인노동자 벌금 폐지를 위한 목요기도회
	7. 9	고 양승균 전경 양심선언 11주년 기념 및 양심선언 군인, 전경 명예 회복을 위한 목요기도회
	8. 6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목요기도회
	9. 17	민족민주열사 명예 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목요기도회
	10. 15	한총련 이적 규정 철폐를 위한 목요기도회

후 예배), 한국통신, 현대자동차 노동자 지원, 장기 복역 무의탁자 및 군경인권수호, 장애인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정도로 프로그램 자체가 축소되었다. 목요일예배는 기독교 운동의 외현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내부 근력을 키워갔느냐에 따라 외현의 결과는 확연히 다르다. 1990년대 목요일예배에 보이는 현상은 내부의 약화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상의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우선 성직자 위주의 기독교 인권 운동이 갖는 한계를 말할 수 있다. 기독교 인권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려는 다양한 기독교인들의 운동이었는데 그 열매는 성직자에게 돌아갔다.¹⁸⁾ 에큐메니컬 진영의 몇몇 지도층 인사들이 에큐메니컬 기구들의 자리를 독과점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몇몇은 아예 인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던 김대중 정부의 요직에 임명되면서 ‘종로5가 마피아’라는 말이 등장하는(손승호, 2018; 55) 상황이 이를 증명한다. 1990년대 풀뿌리 민주는 이미 지역 곳곳으로 내려가 확산을 꾀하고 지역문제와 생존의 문제를 고민할 때 기독교 인권 운동의 핵심 세력들은 여전히 외연 확장에 관심이 부족하였다. 평신도 기독교 운동가들 역시 풀뿌리 민주시민 운동으로 흩어지면서 지역 인권 운동으로 흡수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중앙의 의미가 희석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1970-80년대 민중들이 오갈 데 없었던 처절한 환경이 기독교 인권 운동을 최대한의 역량으로 끌어냄과 동시에 지역 현장을 능동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나태함을 동시에 갖게 한 역설이다.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현장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새로운 시민운동으로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과 민주적 의사소통이 중시되는 시민사회 흐름 속에 기독교 내부의 탈성직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이 간과되었다. 억압적 권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집할 저항 세력이 사라져 기독교 운동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하는 흐름에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운동의 수동적 방식이 기독교 인권 운동을 쇠퇴하게 만든 것이었다.

2. 시민운동으로서 기독교인 활동

1980년대 기독교 운동이 갖는 가장 큰 강점은 현장성과 실천성에 있다. 각 지방의 기도회와 해외교포들의 기도회가 시작되고 지속적인 후원이 있었던 것은 목요일예배의 현장성과 인권수호의 실천에서 나온다. 불의한 독재자에게 ‘살인마 전두환’이라 칭하며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경고하였던 고영근의 사역 역시 현장성과 실천성에 있었다. 각 지역을 순회하며 척박한 삶의 터전과 생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침해 현장을 목도하면서 그들의 입이 되어 주고

18) 손승호는 이 문제에 대하여 ‘청년운동을 통해 육성된 인적 자원들은 다시 교회 내의 평신도 리더십으로 재생산되지 못했고 기독교 청년운동이 교회 안에 튼튼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민주화 이후 운동가의 상당수는 교회를 떠났다.’고 서술한다. 1980년대에 활발했던 기독교 청년운동이 기독교 인권 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의 문제는 기독교 운동의 개방성의 문제, 현장성의 문제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발이 되는 일을 하였다. 권력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의 강연과 설교를 듣고자 모인 이들 역시 각자의 지역과 영역에서 인권을 위한 실천을 해나갔다.¹⁹⁾

시대는 80년대를 뛰어넘어 시민운동이 발전하는 90년대 초, 80년대와는 다른 운동들이 전개되었다. 권력의 감시와 비판에 활동의 초점을 두고 참여자의 자발성에 기초하는 네트워크형 조직모형을 취하고 이익집단의 운동과는 달리 중간층 지지에 기초해 새로운 사회권력을 창출하려는 사회운동의 맥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김동춘, 2000; 227-228). 고영근은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NCCK와의 연대활동을 멈추고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민주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현실에 절감하여 언론감시 운동의 일환으로서 ‘공정언론촉구성직자회’를 설립하였다.²⁰⁾ 공정언론촉구성직자회는 300여 명(초기 160명)이 넘는 회원으로 구성되었고 매달 실행위원회를 거쳐 공개 권고문의 초안을 잡고 토론과 수정작업을 거쳐 발표하였다.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지키기 위해 공동 작업으로 작성된 성명서와 권고문이 아닐 경우 고영근과 목민선교회 명의로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회원 307명(94년 309명, 95년 320명)의 의사결정과정을 철저히 거쳐 전체 공동명의로 발의된 성명서, 권고문, 공개서한은 <표 3>과 같다.

모든 회원들의 의사가 발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실행위원회 회의와 동의서를 받아 의견을 수렴하는 일련의 과정은 개방적 의사결정과정의 모범적 사례로 남는다. 특히 공정언론성직자회는 각 지역의 성직자들이 골고루 참여하였는데 각 지역에서 보낸 회원들의 위임장을 보면 서울 13, 경기 7, 충남 23, 충북 1, 강원 7, 전남 11, 전북 30, 경남 3명의 회원분포를 볼 수 있다. 수도권에만 편중되지 않고 각 지역의 성직자들을 고루 흡수한 것은 전국 집회를 돌아다니며 각 지역의 성직자 및 활동가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공정언론촉구성직자회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발표한 성명서, 권고문, 공개서한은 총 69편에 달한다. 그 안에는 소소하게 각종 신문 사설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한 내용부터 크게는 미국정부와 헌법재판소나 한국정부에 대한 정의 확립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다만 이들 권고문이나 공개서한, 성명

19) “목사님의 설교는 듣는 사람 모두의 심장을 뛰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 민주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굳센 신앙이 불타올랐 다 할까요? 목사님의 설교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수 많은 정보들이 있었어요. 전국을 돌아 다니시니 정보수집이 가능했던 거죠. 우리는 지방에 있으니까 다른 지방의 소식들을 알기 쉽지 않았죠. 그 때는 SNS같은 게 없었을 때니 인권 소식 정도만 볼 수 있을 때였으니까요. 말씀에도 힘이 있는데 그 안에 새로운 정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니 신기하기도 했어요...”(김병균 목사 구술 중에서, 2020. 11. 4. 오후 12시).

20) “존경하는 동역자님께 드립니다”...‘8월 13일 창립총회를 열고 전형위원 7명을 선출하여 본회 정관, 창립선언문, 임원선출, 사업계획 등을 위임하였습니다....이 귀한 사업에 동참하는 뜻을 구두로 위임하신 분과 문서로 위임하신 분이 계신데 가급적 문서로 위임장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우리 모두 “예언자의 집단”이 되어서 이 시대의 파수꾼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합시다.’(1990. 8. 17 공정언론촉구성직자회).

<표 3> 공정언론촉구성직자회 공동성명
 <Table 3> Joint Statements of The Fair Press Urging Clerical Association

1990. 8. 13	부도덕한 월간(주간)지의 반성을 촉구한다(퇴폐풍조는 하나님의 정의, 국민윤리와 도덕 파괴, 민주 의식 궤멸, 사치 낭비 조장)
1990. 8. 29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에게 드리는 격려 편지(“말썽 많은 심야토론의 편파성”을 읽고-KBS가 독재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문제 등)
1990. 8. 30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를 규탄하며 회개를 촉구한다(150회 임시국회 파행은 김대중, 김영삼의 패권싸움이란 기사를 읽고)
1990. 8. 31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 보내는 공개 권고문(“3김씨 비판 공방” 논설을 읽고)
1991. 5. 30	미국정부에게 보내는 공개 권고문(한국분단과 한국전쟁의 책임, 독재정권 창출과 방조, 긴장 고조, 정도를 줄여야 한다)
1992. 8. 3	미국정부에게 보내는 두 번째 공개 권고문(정책개선, 한국 민주주의 궤멸의 잘못, 일본의 재무장 방조 말고 세계평화 기여)
1992. 9. 6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공개 권고문(헌법재판소는 단체장 선거 연기 위법 여부 소원 건을 속히 판결하라)-공동명의
1994. 4. 11	김영삼 정부와 언론인에게 보내는 공개 권고문(12.12 군사 반란 사건을 공정정대하게 처리하기를 촉구한다-정의 기강, 민주화와 통일, 군 기강 확립을 위해)
1995. 7. 6	남북한 정부와 언론인에게 보내는 공개 권고문(조국 해방 50주년을 맞이하여 장기수와 시국사범 전원을 석방하기를 촉구한다)-공정언론촉구성직자회(320명)와 한국목민선교회(350명) 공동명의

서들이 빨리 대응해야 하는 일에는 고영근이 대표의 성격을 띠고 발표한 것으로 보이며 중차대한 굵직한 성명에는 전체 회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지를 작성, 성명서 내용의 수위, 횟수, 회원 의사 반영의 기회, 회원 의사 반영 방법 등을 상세하게 문항을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계에 봉착하는 것은 공동의 실천성에 있다. 성명에 공동서명은 할 수 있으나 고영근이 1992년 6월 15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하면서 행한 활동에 같이 동참하기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그가 선택한 실천은 개인적으로 실행한 ‘노태우 고소 고발 사건’이다.²¹⁾

21) 「목사 고영근의 성명서, 공개권고문, 공개서한집 3(1990-1999)」, 고영근 1980~2007년 시국관련 사료집,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소장사료

고 발 장

고발인; 고영근

피고발인; 노태우.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엄정히 조사하여 법에 정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발죄명: 지방자치제법 부칙 제2조 2항 위반.

1990년 12월 31일 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2항에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한다”라고 제정 공포되었다고 법에 명시되었다. 위와 같은 법률이 여야 합의 하에 합법적으로 제정 공포되어 엄연한 대한민국의 실정법인데도 불구하고 1992년 1월 10일 노태우 민자당 총재는 이 법에 대한 아무런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체장 선거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여 대통령인 노태우 자신이 실정법을 위헌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된 (헌법 1조 2항)에 보장된 바 있는 국민들의 권력 창출 권한이 박탈되었다. 그러므로 본 고발인은 민주 국민의 권력창출권을 박탈한 범법자 노태우를 고발하는 바이다.....

1992년 8월 26일 고발인 고 영 근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장 귀중

두 번째 한계는 재정문제이다. 1993년 10월부터 전체 회의를 거쳐 박상증 목사가 회장을 맡으면서 공정언론촉구성직자회의 활동은 저조해지기 시작했다. 어떤 활동이든 문제는 재정문제인데 공정언론촉구성직자회의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은 주목할 만하나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수평적이지 않았다는 한계로 쇠퇴의 길을 걸었다. 공정언론촉구성직자회의는 독립적인 조직이나 재정적으로는 한국목민선교회에 모두 의존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의미는 명확하나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결의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²²⁾

하지만 공정언론촉구성직자회의의 기독교 언론감시 활동은 90년대 초반 기독교 인권 운동이 새로운 흐름에 발맞춰 능동적인 활로를 찾지 못할 때 새로운 대안으로 나타난 활동이라는 측면에 의의가 있다. 이 활동은 시민 감시 활동 뿐 아니라 기독교가 가진 고유한 예언자적 사명들을 성직자에게 일깨워 공동의 활동을 함으로써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의미가 크다. 그리고 공식적인 성명서를 통과시키기 위해 임원 및 상임 실행위원 연석회의, 공개 권고문 인준에 관한 건 등 성명서 및 권고문 문안 인준에 대한 내부 토의로 그들 안의 공론장을 펼쳤다.²³⁾ 또한 내부 의사수렴 방식에 대해 개방적인 과정과 절차 등은 민주시민의 의사결정과정의

22)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는 선교비의 지원 문제입니다. 그동안 본 회의 경비는 일체 한국목민선교회 (회장 고영근 목사)에서 부담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야 하겠는데 그러면 선교비가 절실히 필요하오니 귀 교회 선교비 예산에서 가급적 많은 선교비를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93년 9월 16일 공정언론촉구성직자회 실행위원 고영근 임영천 김활용 장성룡 고민영 차선각 정상복 정명기 김성락 드림(“회원에게 드리는 편지”, 「공정언론촉구성직자회 공문 및 편지」)

모범적 사례로 보인다.

언론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저항하는 주체로서 등장한 기독교 성직자들의 활동은 이데올로기적 호명, 효과의 결여 지점을 명확히 꿰뚫고 권력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을 구성하는 언론과 교육, 문화(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문화적 흐름), 그리고 기독교 보수 교단의 비역사성까지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모순적이게도 현재 가짜뉴스의 생산, 재생산이 보수기독교 대형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볼 때 공정언론촉구성직자회 활동이 1995년으로 멈췄다는 것은 아쉬움이 크다. 오히려 정론을 지켜내는 일이 기독교의 시민사회 운동으로 정착했다면 배제와 혐오로 일관된 보수 기독교 세력이 이토록 확장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해본다.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그렇지만 모든 현상에는 역설이 있기에 지금의 현실에 기독교가 시민사회 운동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노력은 역설적으로 보수 기독교의 가속도 붙은 보수화를 무력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²⁴⁾

3. 기독교 공공성의 과제

80년대가 억압적 권력에 저항한 시대였다면 90년대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억압적 권력은 약화되었다. 90년대는 억압적이던 국가 장치, 즉 정부, 군대, 경찰, 법, 감옥 등 폭력으로써 기능하는 장치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의 복수적 형태로 시민사회의 일상을 시민 자신으로 하여금 내재화시키며 지배적 속성을 유지시키려 하는 시기라 말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은 종교(여러 가지 교회체계), 교육(여러 가지 학교체계), 가족, 법, 정치(정당을 포함한 정치체계), 노동조합, 커뮤니케이션(신문, 라디오, TV 등), 문화 등이다(Louis Althusser, 1991;150). 이데올로기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들이다. 이데올로기는 일련의 담론과 이미지 그리고 개념들을 구성하며 역사적 현실과 관련을 맺

23) 현재 소장된 사료에서 나타난 성명서 협의에 관련된 공문은 다음과 같다. 1990. 10/27; ‘언론인에게 드리는 글’ 심의, 1991. 4/15; 경과보고와 평가회, 5/20; 미국정부에게 보내는 공개 권고문 인준, 서명운동 전개, 1992. 1/25; NCC 언론대책의 관계 수립의 건, 7/; 미국정부에게 보내는 권고문 문안 인준, 8/20; 단합 대회 및 언론에게 공정 보도를 촉구하는 대회의 건, 9/20; 임원 개선과 성명서 채택, 1993. 6/3, 9/16, 10/4, 11/12; TV방송국에 보내는 권고문 축조심의 건, 11/23 ; 정관개정의 건.

24) 고영근의 90년대 활동은 공정언론촉구성직자회 뿐 아니라 1995년 시국사범 석방 운동, 비전향 장기수 후원사업(1990~2005), 생활개혁운동본부 활동, 나라를 위한 기도회와 시민 강좌회(1997), 나라를 걱정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임(2000) 등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지속적인 그의 활동은 한국목민선교회에 기반하고 있었다. 특히 1995년 시국사범 석방운동과 비전향장기수 후원사업은 통일 문제 뿐 아니라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분단의 문제와 기독교 보편성으로의 화해와 사랑의 논의에 있어서 유의미한 사업이었는데 이는 선행연구(고성휘, 2020; 327-336)에서 어느 정도 다뤘기 때문에 그 유의미성을 밝히는 일은 논외로 한다.

지만 역사적 현실이나 그 현실 속의 우리 환경에 대해 정확하게 재현하지 않는다(Luke Ferretter, 2014; 148). 그러나 물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배 권력은 이데올로기적인 담론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지배를 유지하려 하고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은 억압적 국가 장치에 협력하게 된다(Ibid., 149). 비록 이데올로기가 담론들로 이루어져 있고 담론들이 재현하는 관념들로 이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데올로기적 장치는 결코 관념적인 현상이 아니다. 실천 혹은 실천들 속에 존재한다.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일상의 삶 속에 개인은 그 담론들을 내면화한다.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개인을 구체적인 주체로 호명할 때 개인은 자신의 능동성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나인 것처럼 동일시하며 그의 호명에 응답한다. 개인들을 주체로 모집하거나 주체들로 변형시킬 때(Louis Althusser, 1991; 178) 개인은 마치 능동적인 주체인 양 응답하는 주체, 자유로운 주관성, 주도권의 중심, 행동의 창시자이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개인으로서 응답한다(Luke Ferretter, 2014; 166). 마치 주체의 선택인 것 같지만 강제된 결정에 대한 굴복이다. 대타자, 즉 이데올로기적 장치는 마치 언제나 주체의 선택이었던 것인 양 은폐된다(최원, 2016; 247).

하지만 이러한 구도에도 이중의 주체가 나타난다. 그 중 하나는 이데올로기적 호명에 자신도 모르는 채 가깝게 다가서는 주체이다. 알튀세르에 의하면 이들은 이데올로기적 호명에 답한 자율적, 내면화된 주체일 뿐이고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의해 순응된 주체일 뿐이다. 그들은 이데올로기적 호명이 자신을 향한 내면화의 주체로서 응답하는 것이 당연하다 느껴지는 수동적 존재일 뿐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들은 그리 순진하지 않다. 냉소적 주체는 그 구조를 뒤집는다. 냉소적 주체는 이미 계몽된 주체이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주체이다. “그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다” 냉소적인 이성은 더 이상 순진한 이성이 아니다. 계몽된 허위의식의 역설이다. 냉소적 이성은 이러한 거리를 미리 고려했다. 자신의 아이러니한 초연함으로 이데올로기적인 환상의 근본적인 수준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남겨 놓는다(김선규, 2020; 105). 지적에 의하면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순진함에 의문을 제기한다. 문제는 ‘실재를 존재하는 바로 보는 게 아니다’의 핵심은 이데올로기적 가면과 사회 현실 사이의 거리를 주체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냉소적 이성은 더 이상 순진하지 않다. 그것은 계몽된 허위의식의 역설이다(Slavoj Zizek, 2013; 62-63).

1990년대의 국가 장치로서(이것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의 문제를 살펴보려 한다. 알튀세르의 논의는 충분히 90년대의 시민사회에 주체도 모르게 행해지는 일상의 담론 호명에 주체로 등장하여 응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억압적 권력 하의 강제가 아닌 이상 모든 것이 시민 자신의 선택에 의한 선택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연 그들 모두가 몰랐을까? 하는 것에 있다. 우선 알튀세르의 말처럼 그들이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알아채지 못한 채 그 장치가 호명하는 것에 응답한다는 것은 내면화의 결과다. 우리는 무수한 삶의 조건 속에서 내면화한 나를 발견한다. 학교

교육에서 순응적인 나, 사적 영역의 가정생활에서 가부장에 종속된 나, 종교 생활에서 죄의식에 찌들은 나, 문화에서 타인의 욕망에 따라가는 나로서 내면화된 나의 삶의 영역들은 무수히 존재한다. 그 모든 타인의 욕망, 즉 대타자의 욕망에 우리는 마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인 양 주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응답한다.

예를 들면 종교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가 있다. 이들 교권 세력들은 과연 지배 권력에게 협력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효과와 과정을 모르고 응답했을까 하는 것이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설 때 가장 앞다투어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여 축도를 해 주었던 인물들이 88년 NCKK의 통일선언을 빌미로 한기총을 조직하면서 본격적으로 국가권력에 측면으로 봉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유로운 종교 이데올로기이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궤변은 바로 지배 이데올로기에 적절히 협력하는 냉소다.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순응하는 개인인 것처럼 행동하나 사실 그들은 이것뿐인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철저히 계산하여 그들의 냉소를 감춘다. 이데올로기적인 환상의 근본적인 수준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남겨 놓는 계산에 철저하게 움직이면서 지배 권력의 이익에 봉사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계수한다. 학교 교육, 매스커뮤니케이션, 문화적 장치 등 모든 일상의 삶에서 만나고 내면화되는 무수한 담론들의 영역이 지배 권력의 정치 수단으로 협력하고 있다.

공정언론촉구성직자회의 출발은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이었다. 지배 권력의 효과로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적 호명에“아니요”라 외치는 주체의 결정이야말로 대타자의 결여를 뒤집고 이데올로기적 호명에 뒤로 돌아서 저항하는 기독교적 주체(8)라 할 수 있다. ‘부도덕한 월간(주간)지의 반성을 촉구한다’(퇴폐풍조는 하나님의 정의, 국민윤리와 도덕 파괴, 민주 의식 궤멸, 사치 낭비 조장)라는 선언부터 교정행정에 나타나는 문화적 폐해, TV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문화적 폐해 등을 지적하며 정치적인 문제 뿐 아니라 개인적 삶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정의의 측면에서 이 문제는 옳지 않다’라는 저항의 움직임을 집단적으로 조직하였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²⁵⁾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에 대한 새로운 저항의 형태에 선진적인 반응을 보였던 움직임이 기독교 인권 운동의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독교 인권 운동에서 잊혀져 가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시민운동으로서 철저한 가치들을 구현했던 조직이 지속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더구나 현재 가짜뉴스의 폐해 뿐 아니라 올바른 매스미디어 민주 시민 교육에 있어서도 계승되지 못한 이 활동은 아쉬운 일이다. 기독교의 공적 기능으로서 언론감시 운동이 지속되었어야 했다. 이제는 기독교 보수대형교회에서 가짜뉴스들을 직접 생산,

25) 대검찰청(1993. 9. 7), 정부합동민원실(1993. 10. 7), 정무장관(제1)실 (1993. 12. 7), 정부합동민원실(1993. 12.8), 법무부(1993. 12. 10), 공보처(1993. 12. 14), 문화체육부(1993. 12. 16), 서울방송 기획실장(1993. 12. 21), 법무부(1993. 12. 22), KBS 편성실장(1994.1.4.), 한국방송공사(1994.1.14.), 이외 35편의 정부 관련 공문이 남아 있는데 TV 프로그램 개선문의, 교도 정책, 김영삼 정부와 언론인에게 보내는 공개 권고문 등에 대한 답변서들이다. 특히 대검찰청이 회신한 공개 권고문은 서울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에 있음을 알렸다.

재생산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히려 기독교의 공공성을 실추시키는 이 시점에서 이들의 ‘아니오’라는 단호한 이데올로기적 호명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반추하는 것은 오늘의 기독교 공공성을 정립하는 첫 단추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IV. 결 론

이상으로 1980-1990년대의 고영근과 기독교 인권 운동을 함께 했던 동역자들과의 활동이 기독교의 공공성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억압적 권력에 저항한 그들의 투쟁은 종말론적 신앙 고백의 초월적 신앙으로 출발하여 정의와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보편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는 특히 보수 대형교회를 향하여 정의 없는 사랑을, 기독교 인권운동가를 향하여 사랑 없는 정의를 지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의와 사랑의 보편성 아래 그들의 투쟁은 철저하게 현장에서 출발하였고 책상에서, 문서로서, 말로서 행해진 활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민중 생존권과 생명 존엄권을 위해 온몸으로 고난의 현장 위에 뛰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서로 다른 시대적 차이가 있음에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가치들은 오늘의 기독교에 있어서 유의미한 공통적 가치로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출된 기독교의 공공성의 가치들은 공통적 속성을 갖고 있다. 초월성, 보편성, 현장성, 실천성, 개방성이 그것이다. 물론 이들의 공통적 가치들이 모든 시대를 거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 교회의 본질과 인류에의 보편적 정의와 사랑의 가치가 기독교 내부에서 실현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 역사 앞에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다. 이러한 공통적 절박함은 실천성, 현장성, 개방성들에 기초를 두어 기독교가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공공성을 되찾아가는 노력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차 사료>

- ‘5.18 추모예배 사건에 즈음하여’ 1982년 5월 20일 5.18 추모예배 사건 대책위원회
(Translated in English) ‘Statement on the 5.18 Memorial Service Event’ Committee on 5.18 Memorial Service Event, May 20, 1982.
- ‘5.18 추모예배 및 「전남도민 단합대회」 사건 경위와 우리의 주장’ 1982. 5. 21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Translated in English) ‘Our Position and Findings on 5.18 Memorial Service and 「Unity rally for Jeonnam Residents」’ Presbyterian Church of Republic of Korea(PROK) Jeonnam Presbytery, May 21, 1982.
- “1983년도 목요예배를 위한 계획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NCC 인권위원회 사료 (1004-060-000-3157)
(Translated in English) “Planning Paper for Tuesday Prayer Meetings in Year 1983” Human Rights Committee of Korea National Council of Churches(KNCC) Historical Records, The Institute of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Collection(1004-060-000-3157).
- “1990년대 목요기도회 순서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NCC 인권위원회 사료 (1018-001-003-9, 10, 29, 1018-100-000-4877, 4878, 4879, 4880, 4884, 4885, 4888, 4889, 1001-001-003-12, 1018-094-296-3, 1009-096-304-10, 13, 1018-082-000-4645, 4646, 4647, 4648, 4649, 4650, 4651, 4652, 1018-076-224-1, 2, 3, 5, 6, 7, 8, 9, 15, 16, 1005-035-000-1790, 1018-043-120-10, 1018-024-055-17, 19, 20, 24, 45, 47, 2118-001-001-11)
(Translated in English) “Programs of Thursday Prayer Meeting in 1990s”, Human Rights Committee of Korea National Council of Churches(KNCC) Historical Records, The Institute of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Collection.
- 「1993~2005년 각종 공문서」, 고영근 1980~2007년 시국관련 사료집,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소장사료
(Translated in English) 「Various Official Documents: 1993~2005」, Ko Young-geun’s Records on Current Affairs from 1980 to 2007,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Library collection.
- “고영근 목사 해외 선교활동 보고”,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NCC 인권위원회 사료 (1006-040-000-2160)
(Translated in English) “Report on Rev. Ko Young-keun’s Foreign Mission”, Human Rights Committee of Korea National Council of Churches(KNCC) Historical Records, The Institute

of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Collection(1006-040-000-2160).

「공정언론촉구성직자회 공문 및 편지」, 고영근 1980~2007년 시국관련 사료집,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소장사료

(Translated in English) “Official Documents and Letters of The Fair Press Urging Clerical Association”, Ko Young-geun’s Records on Current Affairs from 1980 to 2007,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Library Collection.

「공정언론촉구성직자회 회원 가입원서 및 공정언론촉구성직자회 성명서 위임장」, 고영근 1980~2007년 시국관련 사료집,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소장사료

(Translated in English) 「Membership Application and Power of Attorney for Co-signing on Statements of The Fair Press Urging Clerical Association」, Ko Young-geun’s Records on Current Affairs from 1980 to 2007,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Library Collection.

「공정언론촉구성직자회 성명서, 공개권고문, 공개서한집 2(1990-1993)」, 고영근 1980~2007년 시국관련 사료집,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소장사료

(Translated in English) 「Statements, Open Recommendations, Open Letters Collection 2(1990-1993) of The Fair Press Urging Clerical Association」, Ko Young-geun’s Records on Current Affairs from 1980 to 2007,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Library Collection.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부 판결문(1978년 2월 16일 재판장 판사 정태규, 오세빈, 신정식)

(Translated in English) Decision of Criminal Court of Jangheung local of Gwangju District Court (Feb. 16, 1978. Judges: Jung Tae-kyu, Oh Se-bin, Shin Jung-sik).

「목사 고영근의 성명서, 공개권고문, 공개서한집 3(1990-1999)」, 고영근 1980~2007년 시국관련 사료집,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소장사료

(Translated in English) 「Rev. Ko Young-geun’s Statements, Open Recommendations, and Open Letters Collection 3(1990-1999)」, Ko Young-geun’s Records on Current Affairs from 1980 to 2007,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Library Collection.

NCC 인권위원회 회의록 1982년 5월 20일

(Translated in English) Minutes of Human Rights Committee of KNCC, May 20, 1982.

NCC 인권위원회 인권청년 연석회의 회의록 1982. 5. 24

(Translated in English) Minutes of Joint Meeting of Human Rights Committee(KNCC) and Human Rights Young men, May 24, 1982

<2차사료>

고성휘 편 (2021). 민중, 민주, 민족을 향한 여정. 서울: 동연.

(Translated in English) Ko, S. H. ed., (2021). *A Journey to the Democracy, the Nation, and the Minjung*. Seoul: Dongyeon.

고영근 목민연구소 (2012). 목사 고영근의 시대를 향한 외침 1; 긴급조치 구속사건 관련 사료집. 서울: 새롭.

(Translated in English) The Institute of Ko Young-geun Mokmin (2012). *A Cry of Rev. Koh Young-geun to the Times*. Seoul: Saerom.

(사) 광주 전남 6월항쟁 (2020). 1987. 6월항쟁 순천, 광양 구술 조사서. 순천: 도서출판 봄.

(Translated in English) (Corp.)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in Gwangju and Jeonnam Area, (2020). *Verbal Statements on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in Suncheon, Gwangyang area*. Suncheon: Bom.

김경일 (2019). 김경일 신부의 삶 이야기-약속. 영광: 도서출판 쇄뜨기.

(Translated in English) Kim, K. I. (2019) *The Promise-Story of the Life of Father Kim Kyung-il*. Youngkwang: Soiddeugi.

김동춘 (2000). 근대의 그늘. 서울: 당대.

(Translated in English) Kim, D. C (2000) *The Shadow of Modern Times*. Seoul: Dangdae.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서울: 후마니타스.

(Translated in English) Cho, H. Y. (2010) *Mobilized Modernization: Socio-Political Dualities of Park Jung Hee's Industrial Mobilization System*. Seoul: Humanitas.

최 원 (2016). 라캉 또는 알튀세르. 서울: 도서출판 난장.

(Translated in English) Choi, W. (2016) *Lacan or Althusser*. Seoul: Nanjang.

Althusser Louis (1971).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이진수 역 (1991). 레닌과 철학. 서울: 백의.

Ferretter Luke (2006). *Routledge Critical Thinkers*. 심세광 역(2014).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서울: 엘피.

Zizek Slavoj (1989).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이수련 역 (2013).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서울: 새물결.

齋藤純一 (2000). Publicness. 류수연, 윤대석, 윤미란 역(2009). 민주적 공공성. 서울: 도서출판 이음.

Ko, S. H. a (2021). Thursday Prayer Meeting of KNCC, One of the Long-Lasting Political Public Sphere for Resistance in the History of Democratization Movement of Korea. *Christian Thought*, 755(2021), 67-78.

- Ko, S. H. b (2021). The Common Values and Publicness Shown in Christian Public Spheres in the 1980s; Focusing on Thursday Worship and Liberal Arts Meetings. *Theological Thought*, 193, 233-264.
- Ko, S. H. (2020). A Study of Go Young-geun's Mokmin Ministry(1988-1999) towards the Fatherland's Justice, Independence, Democratization, and Unification. *Theological Thought*, 189, 307-343.
- Kim, O. S. (2017). Lonely Beings in an Enormous Nation, and the Community. *Theses on Korean literature*, 77, 309-336.
- Kim, S. K. (2020). Re-reading 'Althusser of Zizek'. *Modern Ideas*, 24, 101-119.
- Son, S. H. (2018). The Stagnation of Ecumenical Movement after Democratization and Search for breakthroughs - Focusing on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Christianity and History in Korea*, 48, 31-68.
- Lee, D. J. (2017).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Korean Christian. *Christianity and History in Korea*, 47, 107-165.
- Lee, S. I. (2010). A Study on J. S. Mill's Liberalism through the Concept of the Bourgeois Public Sphere - Focusing on the Discussions in J.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Journal of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61(3), 417-436.
- Cho, C. M. (2013). The Stream of Participatory Civic Movement of YMCA Korea: Centered on Monitorings and Campaigns. *Memory & future vision*, 29, 225-262
- Ju, E. W. (2014). From the Prohibitive Imperative to the Commandment of Enjoyment: Capitalism and Cultural Changes in South - An Interpret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8(5), 59-97.
- Choi, A. Y. (2010). The Fifth Column by Kim Seong-jong Crevices in Self-Censorship under the Youshin Regime-. *Journal of popular narrative*, 23(1), 125-158.
- Ha, H. J. (2020). .Historical Reflection on Korean Christianity and Its Social Movement: Expansion or Socialization?. *Theological Thought*, 188, 275-316.
- Hwang, B. J. (2011). The Mass Perception and Mobilization Discourse of Yusin Regime in 1970s. *Sanghur Academic Journal*, 32, 143-186.